

“사랑·희망 가득 ‘기적의 편지’ 아이들 소원은 이루어진다”

JDC 5000만원 후원,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주관
손편지 최종 174통 접수... 92건 사연 물품 지원

아이들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적의 편지’들이 도착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생, 장애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 등 다양한 아동들의 편지가 접수됐다. 편지 속 내용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상처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사랑, 미래를 향한 희망이 오롯이 담겼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후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 주관으로 진행된 ‘작지만 소중한 소원 이루기를 돕는 기적의 편지’ 사업이 마무리 됐다.

이번 사업은 열악한 가정형편의 아동·청소년을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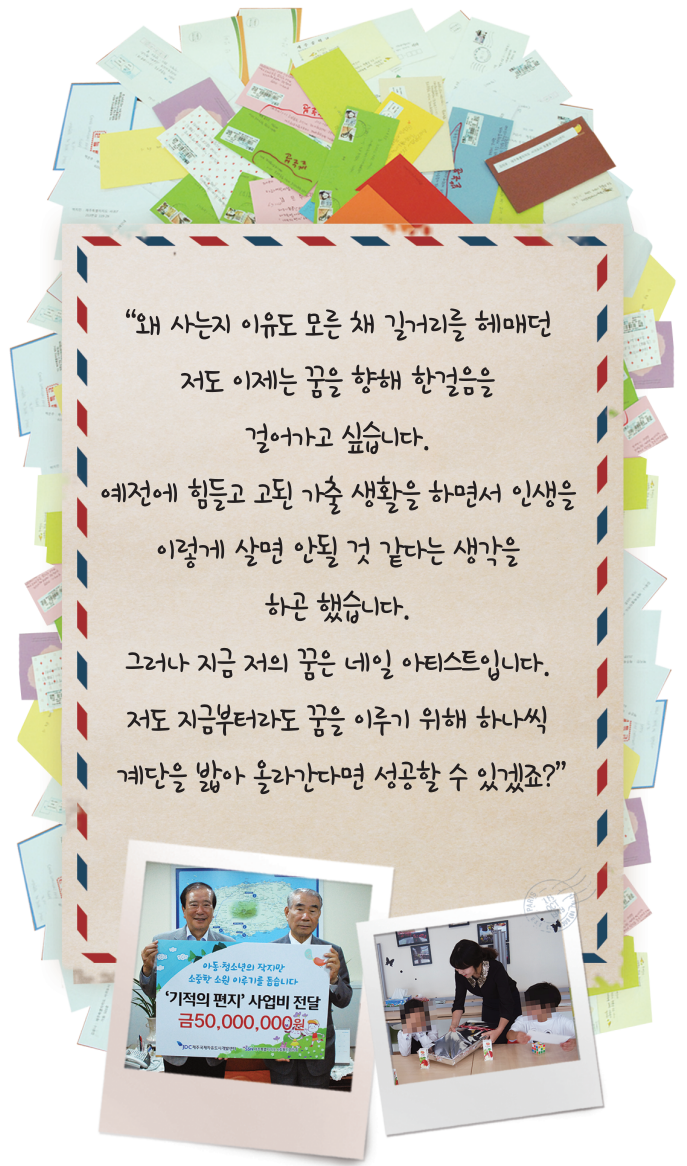
상으로 작지만 간절한 소원을 담은 손편지를 공모해 상대적으로 빈곤감 해결과 자존감 증진, 가족 간의 유대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최종 접수된 편지는 모두 174통이며, 이 가운데 총 92건(52.8%)의 사연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편지에는 다양한 사연이 담겼다. 제주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는 편지를 통해 ‘어머니를 돕는 것’을 소원으로 적었다. 그저 바라는 것 없이 통통부는 어머니 손을 조금이라도 쥌 수 있게, 도움이 될 어떤 것이라도 좋다는 의미였다. 이에 아이의 어머니와의 통화를 통해 ‘책상과 서랍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설에 거주하는 한 학생은 걸음이 불편한 자신의 이야기를 적었다. 자신의 걸음을 돕는 보조기구인 워커를 대여하고 있었는데, 반납시기가 도래했다는 사연이었다. 이에 기적의 편지는 아이를 위해 워커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소원물품을 편지에 담은 학생도 있었다. 가출을 반복하다 시설로 들어간 학생은 최근 상담을 통해 ‘네일 아티스트’라는 꿈을 갖게 됐다. 이 학생은 이번 사업으로 ‘네일박스’를 지원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는 김한욱 JDC 이사장, 고치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적의편지 사업비(5000만원) 전달식이 열렸다.



“왜 사는지 이유도 모른 채 갈거리를 헤매던
저도 이제는 꿈을 향해 한걸음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예전에 힘들고 고된 가출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의 꿈은 네일 아티스트입니다.
저도 지금부터라도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씩
계단을 밟아 올라간다면 성공할 수 있겠죠?”

‘나눔과 기부’ 알리는 2015 제주나눔대축제

오는 9일 탐동 이마트 일대서

다양한 나눔과 기부문화를 소개하는 ‘2015 제주나눔대축제’가 오는 9일(금)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마트 제주점 야외주차

장 일원에서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주관하는 ‘나눔대축제’는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다양한 나눔과 기부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다.

축제에는 약 30여개의 사회복지시설·단체, 기업체 등이 참여한다. 주요 행사로는 아모레퍼시픽 제주지점의 재

능기부로 ‘아름다움을 나누는-나누美’, 함께 비빔밥을 만들고 나눠먹는 ‘삼촌 밥 먹영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나눔상자 만들기’, SK 유나이티드 축구단의 팬사

인회 등이 준비된다. 또 기부물품으로 열리는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나눔장터’와 ‘나눔도서관’,

‘1년 후 받아보는 나눔엽서 보내기’ 등도 마련된다.

행사를 주관하는 도사회복지협의회 고치환 회장은 “나눔과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며 “많은 도민들이 축제장을 찾아, 따뜻한 제주만들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인권사랑방 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와 사회복지현장 근무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인권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운영 내용

-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침해사례 발굴, 접수 및 상담, 법률지원
- 인권관련교육 : 시설종사자 인권교육, 인권강사 양성교육 등
- 사회복지현장 인권침해관련 국내외 사례 수집 및 전파
- 사회복지 인권 향상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포상 추천

이용 방법

- 상담콜 또는 E-mail을 이용한 초기상담 이후 지원방법이 제시됩니다.
- 상담콜 : TEL. 064)702-3782 (변호사 또는 담당직원이 응대)
- 전용 E-mail : tohic@naver.com (변호사 전용)

* 상담의뢰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은 철저히 지켜집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관용 교수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운영위원회 위원

강병삼 변호사, 황인철 변호사
고현수 대표(제주장애인인권포럼),
김경미 소장(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장소영(인권전문강사)



서민을 위한 법률상담서비스 ‘법률홈닥터’ 사업도 함께 운영됩니다.

보조금지원 조례 무더기 보류

도의회, 조례 간 일관성 있는 기준 필요
도정, 부서·조항 별 기준 맞춰 수정 예정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복지관련 조례개정안이 무더기로 심사보류됐다. 각 과별 조례 사이의 개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제32조의2 제2항에 의해, 앞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 되어 있거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5월 TF팀을 구성해 지방보조금 예산반영 실태조사와 보조금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한 조례안을 지난달 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복지관련 조례안 23건을 심사보류했다. 이번 제333회 임시회에 상임위 별로 제출된 조례안은 총 98건이었으며 ‘포괄적 조항’을 넣는 것을 조건으로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74건이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심사보류의 이유로 조례개정안이 부서 및 조례마다 다른 기준과 형식을 갖추고 있음에 따라, 조례사이에라도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는 ‘일·가정 양립사업, 여성 경제력 증진사업’ 등의 포괄적

조항을 담고 있지만, 그 외 다른 조례에서는 ‘경로당 TV수신료’, ‘간식비’, ‘학습지원비’ 등과 같이 아주 구체적인 항목을 담은 경우가 있다. 이와 함께, 인건비 및 운영비를 담은 조례안과 그렇지 않은 조례, 법령자체가 없어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은 빠른 시일 내에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조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관계자는 “예산 편성이 얼마 남지 않아,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일단 상임위 심사를 받고,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조례들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조례에서 너무 포괄적이거나 구체적인 조항들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도의회 의정소식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 토론회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 대천·중문·예래동) 및 제주복지공동체포럼(대표 박규현, 비례대표) 주최, 한국발달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사랑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의 주관으로 지난 8월 28일 열렸다.(사진)

이번 토론회는 오는 11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하카리노 고이치로(일본 무사시노히가시학원 교육센터) 소장이 ‘일본의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주제 발표했다.

또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양문봉 백석대 특수교육학과 교수, 권오형 한국장애인사랑협회 사무국장, 장애인 당사자 윤은호 인하대 문화경영심리연구소 연구원, 장애인부모 이진섭 씨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29일 탐라장애인복지관 다목적실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사례 전문가 교육’도 이뤄졌다.



10월 사회복지시설·단체 행사

사전에 알리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림’ 내 ‘보도자료 접수’ 게시판에 게재 바랍니다. 문의=702-3784(제주사회복지협의회)

시설·단체명	행사명	주요내용	일시·장소	문의
대한노인회 제주시·서귀포시지회	제19회 노인의 날 행사	•기념식 및 표창장 수여, 민속경기대회 등	2일(금) 10시 제주시 : 한라체육관 서귀포시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758-0444 (제주시), 733-1821 (서귀포시)
제주YWCA 통합상담소	폭력피해 여성자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폭력피해여성의 자립 실태 주제발표 및 토론	2일(금) 15시 도의회 도민의방	748-3040
제주특별자치도	제36회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	•1부 만덕제 •2부 김만덕상 시상	7일(목) 10시 모충사	710-287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파워포인트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파워포인트 달인되기 •지역사회 홍보(소통) 자료 만들기	12일(월) 10시~17시 제주사회복지협의회 2층 삼다수홀	702-3784
한국사회 복지사협회· 도사회복지사협회	제9회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	•개회식, 사회복지사 선서, 육상경기, 축구대회, 생애문화관광 등	15일(목) ~ 17일(토) 기념식: MG새마을금고 제주도연수원 경기: 애항운동장 등 도일원	726-2154
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2015년 도민 건강아카데미 운영	•생활속 작은실천 암예방 •강사: 명승권 (국제암대학교암대학원교수)	17일(토) 14시 ~ 16시 서귀포 김정문화회관 1층	754-4434
제주시· 제주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제10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개회식, 기조강연, 정책강연, 사례발표, 특강, 전국대회 선언문 낭독 등	22일(목) ~ 23일(금) 제주그랜드호텔 대연회장	728-2472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9월 기탁 현황

▲개인기부자(김성오)=쌀 100kg ▲개인기부자(양정순)=마차등 6개 ▲금강수산유통=고등어 20kg ▲김치원=김치 40kg ▲꽃비나리는뜨락=떡 202개 ▲동원F&B 제주=만두 등 2,044개 ▲삼다유통=삼다수(2L×6)300팩 ▲서문식품=두부 등 1,927개 ▲싱싱부식=김치 60kg ▲이든이네=멸치 9kg ▲자연드림연동점=빵 40봉 ▲자연드림이도점=빵 158봉 ▲제주보리촌=보리빵 390개 ▲제주시주민복지과=쌀 300kg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2L×6)200팩 ▲파리바게트등광초점=빵 217봉 ▲행복나눔마트=비누 180개



사회복지협의회 2015년 8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740,000	0
난치병환아후원	60,000	0
자원봉사후원	1,375,000	1,375,000
복지사업후원	1,195,624	896,040
푸드마켓후원	3,047,694	655,14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치환
- 편집인 : 고경운
- 등록번호 : 제주 라 01010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 070)4726-8826
- 편집디자인 : 디자인열림

전국장애인생산품 평가 7년 연속 우수

“장애인생산품 유통판매 중추역할 지속할 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 양창오)은 2015년도 전국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평가에서 우수시설로 선정되면서 전국최초 7년 연속 우수시설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지난 8월 27일~28일 전라남도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개최된 2015년 전국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워크숍에서 전국최초 7년 연속 우수시설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주관하는 전국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평가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근거해 매년 전국의 16개 시·도에 설치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

설은 상담 및 판촉사업, 홍보 및 개발사업, 조달사업, 지역사회 관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시설로 선정됐다

양창오 원장은 “앞으로도 제주도 장애인생산품 유통판매 창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제주도의 장애인생산품 판매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 및 소득증대와 재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활동 돕는 ‘민들레카’ 전달식

민들레 홀씨가 제주까지 날아왔다.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이만득)에서 지원하는 ‘민들레카’ 전달식이 지난 달 4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원장 조인석)에서 열렸다.(사진)

‘민들레카’는 한국도시가스협회와 전국 33개 도시가스사업자가 사회복지시설·기관에 여행, 이동, 프로그램 등의 외부활동을 지원하

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제주에서는 당초 민들레카 운영방식(예약을 통해 필요시 마다 차량대여)과는 다르게, 시설에 2년간 무상임대 형식으로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앞으로 운영성과를 보면서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차량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밝혔다.

자활사업 참여 주민 7명 특수아동지도사 등 자격취득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호철)의 자활사업 참여 저소득 주민 대상 자격취득 지원사업으로 총 7명의 참여주민이 특수아동지도사(5인), 심리상담사 2급, 토탈공예강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쾌거

를 이뤘다.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의 지원으로 마련된 이번 사업은 자격취득에 관심을 가지고 진로를 계획해 왔던 자활사업 참여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한 이어도지역자활센터

는 하반기에도 자격취득 지원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한식조리사, 일식조리사, HSK4급(중국어), 우드아트지도사, 노인심리상담사 2급 등 9명을 대상으로 전문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자살예방의 날 기념 노인자살예방 페스티벌 청춘놀이터



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장 정영은)는 지난달 16

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도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의 날 기념 ‘노인자살예방 페스티벌’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자살의 위험성 및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를 조

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에서는 제주시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생명사랑우수경로당 시상식, 제주시 지역의 노인우울 및 자살 경향성 실태보고 발표, 행복 트레이너 이완국 강사의 웃음강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성인지 예산 발굴 늘려야”



2015 제주성인지정책 포럼 ‘제주지역 성인지예산제도 정착 및 지방의회 심의 활성화 방안’이 지난달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여성정치포럼(대표 한정화)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현혜순) 주최, 제주성별영향분석센터(센터장 강경숙) 주관으로 열렸다.(사진)

이날 포럼에는 강경숙 제주성별영향분석센터장, 김

희경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주제발표에 나섰으며, 토론에는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김영보(비례) 도의원, 박주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이경선 제주여민회 상임대표, 이신선 서귀포YWCA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김희경 대표는 “제10대 제주시의회 심의활동을 검토

한 결과, 타지역에 비해 제주시의회의 성인지예산 심의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라며 성인지예산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과제로 ‘성인지예산 심의활성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연계된 성인지예산서 작성 촉구’ 등을 꼽았다.

장애인정책과 관련해 박주희 소장은 “2015년 성인지 예산액 370억 중 장애인 관련 예산은 72억(19.5%)으로, 생각 외로 많지 않은 규모”라며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은 이중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장애인분야의 성인지예산사업 발굴이 활발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3회 나눔장터 ‘왕방상감서’ 실시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지난달 18일 주거복지실현사업의 일환으로 나눔에 대한 인식확산과 지역주민간 유대 증진을 위해 ‘제3회 나눔장터-왕방상감서’를 열었다. (사진)

이날 장터에는 아라 주공주민(할머니 장터),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오등동 부녀회, 복지관 자조모임, 한라산 표고버섯 판매 등 많은 부스들이 참여 했다.

또한 오등동 간장, 표고버섯, 양말, 옷, 가방, 마늘, 툷, 고추 등 다양한 물품과 복지관 직원들이 직접 만든 찹쌀 기름떡, 따뜻한 차 등의 먹거리도 마련돼, 보고 즐기며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발급 안내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문화누리카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6세이상) : 문화누리카드 발급 · 이용 가능!



- 6세 이상 기초 · 차상위계층 전원 발급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가능
- 개인별 카드발급(연간 5만원)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 여행, 프로스포츠 관람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발급기간 : ~2015. 12. 31까지 사용기간 : 발급일 ~ 2016. 1. 31까지

>>신청자격 - 6세 이상(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사회복지시설 거주자포함)
-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 · 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가족 · 우선돌봄

>>발급방법

- 주민센터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신분증지참) → 신청 대상 확인 → 현장에서 실시간 카드발급(2시간 이후 사용가능)
- 홈페이지 신청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카드 신청 → 신청대상자 확인 →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카드수령방법 선택(택배배송/농협영업점 방문) → 카드 수령등록 후 사용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지자체

복권위원회

문화누리 콜센터 1544-3412 www.문화누리카드.kr

“사람의 가치 키우는 행복 제주시대 열어갑니다”



▲ 제1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지난달 11일 제주시 탐동 해변공연장에서 열렸다. 사진은 기념식에 앞서 도내 15개 사회복지직능단체장과 깃발의 입장 모습.

제1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성황



▲ 제주사회복지의 발전을 기원하며 기념식 참가자들이 풍선을 날리고 있다.

제주 사회복지인의 화합과 협력을 위해 마련된 ‘제1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지난달 11일 제주시 탐동 해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 주관으로 열린 기념식에는 원희룡 도지사, 구성지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단체 종사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30명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표창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 공헌한 공로를 인정해故 김성산 전 남제주요양 원장과故 박명자 전 (사)국제사회복지회 부설 노인복

지센터장에게 ‘제주 사회복지 공헌패’를 수여했다. 또 마지막 행사로 행복제주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풍선날리기도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는 사회복지인들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 사회복지인, 대학생 도민 등으로 구성된 20개의 팀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복지가족 단체줄넘기대회’가 열렸다.

표창수상자 명단

▲보건복지부장관 △전영록(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오인숙(중앙어린이집) △김홍규(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무지개마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강연미(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김도훈(신장장애인주간보호센터) △김미량(제주평화양로원) △김소현(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김혜경(무지개마을) △양영자(동광노인복지센터) △양문봉(굿모닝렌트카) △송월화(좋은인연봉사회) △제주항공객실본부 영어자원봉사단 △파리바게뜨 제주동광초교점 ▲올해의 사회복지공무원 △대상: 정상섭(연동주민센터) △본상: 임기숙(아라동주민센터), 문정심(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장려상: 김수철(이도1동 주민센터), 조애록(정방동 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장 △김순채(지적장애인주간보호시설) △문영호(손뜻모아봉사회) △박옥란(별빛누리봉사회) △이정윤(제주시희망원) △KT제주고객본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혜영(한림초등학교) △김미경(서귀포여자중학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박주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변영순(손뜻모아봉사회) △강명식(제주청소년수련관) △김지향(제주문화예술재단)

단체줄넘기 수상팀 명단

▲우승 △정혜재활원 ▲준우승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3위 △가롤로의 집 ▲4위 △신원

「제1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2015 사회복지가족 ‘단체줄넘기’ 대회」 포토에세이



1



2



3

①故 김성산 전 남제주요양 원장과故 박명자 전 (사)국제사회복지회 부설 노인복지센터장에 대한 제주사회복지 공헌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② 단체줄넘기대회 참가팀들이 뜨거운 날씨에도 협동심을 발휘하며 경기에 임하고 있다.

③ 사회복지가족 단체줄넘기 대회에는 총 20개팀 300여명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사진제공= 고기철 사진작가〉

● 소/식/마/당

지역 어르신들 초대해 행복나눔 행사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지난달 17일 지역사회 연계사업 교류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송죽원은 장전과 유수암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직접 모셔와 식사를 제공했으며, 노래자랑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거주장애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국민생활체육 댄스스포츠대회 입상



혜정원 아가의 집(원장 박두현)이 지난달 12일 서귀포 시민회관에서 열린 제2회 서귀포시연합회장배 국민생활체육 댄스스포츠 대회에 참가해 입상했다.

시설 이용자로 구성된 아가의집 팀은 포메이션 라틴 일반부(단체전)에서 1등을 차지했으며, 더불어 일반부 라틴 1종에서 강정우·유주연 씨가 1등, 가족부 1종에서 김진연·유주연 씨가 1등을 차지했다.

이용인 자신감·성취감 올리기 활동



유진주간활동센터·단기거주시설(원장 최은미)은 이용인들의 자신감과 성취감을 올리는 활동을 진행했다.

센터는 지난달 8일 열린 시설장애인 예능발표회에서 라인댄스 공연을 펼쳐 많은 호응과 환호를 받았다. 또 지난달 12일에는 제18회 전도수화공연대회에 한라대 사회복지과 한라곰두리동아리와 연합팀으로 참가해 특별상을 받는 성과도 이뤘다.

장애인가족역량강화사업 ‘부모교육’



제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영재)는 장애인가족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부모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주)쌤스토리 및 부설 아동발달센터 김성남 대표이사를 섭외해 ‘발달장애아를 위한 스마트 미디어의 활용’을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으며, 아이패드를 활용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능 등도 알아봤다.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탐방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약천사 자광원(원장 권오중)은 지난달 9일 한국 등산트레킹지원센터, 제주관광대학 사회복지과 탐모라봉사대와 함께 한라산 둘레길 생태탐방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탐방은 2015년 산림청 녹색자금지원사업으로 숲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인성함양과 조화로운 심신의 발달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대의원들과 함께하는 달빛걷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는(회장 박영재)는 ‘두리함께 여행사’의 후원으로 지난달 7일 중문골프장에서 관광객 유치에 위해 무료로 실시되고 있는 달빛걷기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대의원들과 함께하는 달빛걷기’ 시간은 대의원들과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며, 유대강화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지천축제서 도예체험 행사 진행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지난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동안 거상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테마로 한 제7회 산지천축제에 참여해 도예체험행사 및 다육식물 도자기 화분 판매 등의 활동을 펼쳤다.

건입동산지천축제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지난달 4일 산지천 일대에서 개막해 다양한 체험행사로 꾸며졌다.

역사와 문화 살피는 서울나들이 진행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이민숙)은 지난달 6일 1박2일 서울 나들이 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이용장애인, 자원봉사자, 직원들이 동행한 이번 나들이는 용산 전쟁기념관, 서울 대공원, 경복궁 등을 관람하며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고, 역사의식을 고취시켰다. 또 유람선을 방문해 음악에 맞춰 다른 관람객들과 어울리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고충석) 직원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임직원들은 지난 8월 31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일대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자들은 지난해부터 도내 43개 읍·면·동사무소로부터 의뢰를 받은 가정을 방문해 집수리 및 장판 교체 등 봉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 열어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효(孝)의식 함양 및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을 활발히 진행했다.

이번 인형극은 ‘행복한 지게’라는 주제로 지난 7월부터 도내 지역 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아동들을 찾아 총 10회의 공연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아동들을 대상으로 인형극 공연 지속할 예정이다.

장애인 근로자 자기계발 프로그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엘린(원장 한봉금)은 전직원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여가활동을 통한 장애인 근로자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근로자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체력 단련을 통한 건강한 직장생활과 삶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주1회 볼링, 요가와 월1회 영화 및 공연 관람을 진행하고 있다.

모흥골 호숫장 플리마켓 참여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원장 현성훈) 직업지원반Ⅱ는 제주 애덕의집과 함께 지난 7월부터 매월 네 번째 토요일마다 이도1동 소공원에서 열리는 ‘모흥골 호숫장 플리마켓’에 참가해 오고 있다.

두 시설 이용인들은 플리마켓에 참여해 자신이 직접 만든 목주팔찌, EM비누, 건강차 등을 홍보하고 판매하며 나눔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회를 접했다.

시론

우리의 작은 관심이 변화를 가져온다



나 용 해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장

최근 몇 년간 우리사회는 꽃 같은 아이들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들로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런 사건들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국민적 여론과 관심에 힘입어 작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학대피해 아동 보호와 예방을 위한 절차가 다양하게 도입되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먼저,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2항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알게 된 경우 · 의심도 신고해야

즉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대상이 기존 ‘알게 된 경우’에서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되는 경우’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특례법 도입과 더불어 아동학대 신고건 수도 괄목할 만하게 증가했다.

지난 7월말에 발표된 ‘2014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전국적으로 17,791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고 이중 10,027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전국 아동학대 신고건 수는 2013년 13,076건에 비해 36%가 늘었으며, 아동학대 판정 건 수도 3,231건(47.5% 증)이 늘었다.

우리 제주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2014년 도내 아동학대 접수건 수는 625건으로 전년 374건 대비 251건이 증가(67.1% 증)하였고, 아동학대 판정 건 수도

2013년 대비 153건이 증가한 288건(113.3% 증)이다.

아울러, 아동학대의 주요 가해자 중의 하나는 부모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014년 기준으로 전국 아동학대 가해자의 81.8%(8,207명)가 피해아동의 부모였다.

친권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으로 인하여 아동에 대한 체벌이 가정 내 아동 훈육 방법의 일환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가정문제로 간접할 수 없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이를 반증한다.

방관치 않는 자세 필요

사랑받아 마땅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인 우리부터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방관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관심이 필요를 낳고, 필요가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 주변을 다시 한 번 돌아보자.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변화를 가져온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칼럼

‘지금’의 가치와 2015년의 인생노트



김 범 훈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 위원

올 추석, 18년 만에 가장 큰 보름달인 한가위 슈퍼문(Super Moon : 초대형 보름달)이 떴다. 슈퍼문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마음속의 소원들을 빌었다. 웬지 다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즐거움의 이면에는 괴로움도 교차했을 터. 누구보다 주부들은 명절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이다. 명절 음식 등을 준비하다 보면 온몸이 피곤하기 그지없다. 주부들은 명절이 너무 괴롭다.

다소 위안이 될지 모르지만, 주부들을 위한 우스개 몇 마디를 인용해본다. 예전에는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 했다. 이제는 처화만사성(妻和萬事成)이라고 한다. 부인과의 관계가 화목하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다는 뜻이다. 해서 천하태평(天下泰平)에서 처하태평(妻下泰平)의 시대라고 한다. 한마디로 남편의 인생은 부인에게 달렸다는 것이다. 머지않은 여성상위 시대, 남편들의 생존법치곤 아이디어가 기발 명랑하다.

기쁨과 행복 · 슬픔과 불행 마음먹기에 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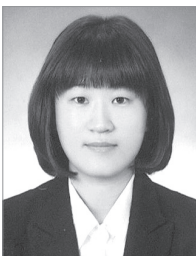
비록 우스개는 아니지만 글자 한 획만 달리 하여도 뜻을 달리하는 우리말 또한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남’과 ‘남’이다. 남에서 한 획을 더 붙이면 남이 된다. 남에서 한 획을 빼면 남이 된다. 글자만 놓고 보면 남과 남은 이웃사촌간이다. 하지만 현실은 자석의 양극처럼 극과 극이다. 그러나 양극은 서로 통할 때 존재 의미가 있다. 남보다 남이 많은 사회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의미다.

이렇듯 우리가 쓰는 말과 글은 참으로 오묘하다. 마음먹기에 따라 기쁨과 행복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고, 슬픔과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우리들은 멘탈게임에 너무 약하다고 한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두려움, 불안, 고민, 열등감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곤 한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족하면 한계를 인정하고 더 큰 용기를 갖고 도전하면 될 일이다.

우리 인생에는 가장 소중한 금이 3가지 있다고 한다.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이다. 이들 3가지 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 아닐까 싶다. 늦었다는 지금, 부족하다는 지금이 오히려 인생노트의 가장 중요한 기록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지금의 가치를 모른다. 지금이 훗날에 ‘후회스러운 그때’가 된다면, 그야말로 스스로의 비극이다. 3개월이나 남은 2015년, 우리들의 올해 인생노트는 지금의 가치 있는 기록들을 기다리고 있다.

기고

밥심으로 산다



홍 가 연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얼마 전 기초수급자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바닥이 차가웠다. 하지만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책장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지병이 있어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으시고 일을 오래 하지 못해 집에서만 생활하신다고 하셨다. 갑자기 문득 식사는 잘 챙겨 드시는지 궁금해졌다. 여쭙어보니 가끔 지원

받는 라면으로 대충 때우신다며 쌀은 사먹기가 부담된다고 하셨다. 정부에서 쌀값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음에도 뜨끈한 밥보다 라면을 드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안타까웠다. 할아버지께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 신청하셔서 밥심으로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돌아왔다.

정부에서는 쌀값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양곡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정부양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컨대 올해(2015년)기준으로 20kg쌀 1포의 가격이 44,410원이면 정부에서 쌀값의 50%(22,210원) 지원해 본인은 22,2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우리시에서는 주기적으로 정부양곡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있고, 2014년 하반기에는 대상자들에게 우편으로 사업에 대해 알렸다.

그럼에도 아직도 정부양곡사업 지원을 받는 대상은 적다. 지원 사업에 쓰이는 쌀이 값은 싸지만 질은 떨어질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매월 1~10일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배송업체에서 집까지 배달해준다. 신청만 하면 반값에 올해 수확한 신곡을 집까지 배달받을 수 있는데 잘못된 인식 때문에 좋은 제도가 외면 받는 것 같아 아쉽다.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라는 말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정부양곡사업을 통해 든든한 밥심으로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이겨내셨으면 좋겠다. 정부양곡제도의 진심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한다.

1)설탐방

(71)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행복한 쉼터’

장애인 전인적 재활자립과 사회통합 기여
복지서비스 취약한 서부지역에 지소 개소

제주시내 구제주 광양벌에 자리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고은실, 이하 복지관)을 찾았을 때 무언가 따스한 기운이 느껴졌다. 복잡박작 거리는 복지관 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장애인·비장애의 구분은 없었고 그저 그 넓은 공간에 사람들의 흥겨운 정만 가득했다.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행복한 쉼터’라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미션답게,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자연스레 어우러지는, 마치 커다란 ‘주민복합센터’를 연상케 했다. 사람, 지역, 복지관이 공존하는 곳, 탐라장애인복지관을 찾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도장애인총연합회가 운영법인인 탐라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000년 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직업지원, 교육지원, 사회심리지원 등 중

합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설립됐다. 복지관은 설립 후 15년 동안 지역사회 내 장애인 문제 전반에 대한 홍보와 계몽, 조사·연구사업을 벌였고, 지역주민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전인적 재활자립과 사회통합에 기여해 오고 있다.

복지관의 하루 이용자는 평균 700여명에 이른다. 복지관은 제주시내 중심에 위치해 있어, 시내권 거주자들이 찾아가기 편리하다. 이 많은 이용자들을 어떻게 수용할까 들여다보니, 입이 떡 벌어진다.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활동보조인 등 350여명의 직원과 380여명(2015년 8월 기준)의 자원봉사자가 한 몸처럼 활동하고 있다.

복지관의 주요사업과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중심을 두고 있다. 다양한 부대시설을 통해 장애인과 지역주민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을 추구한다. 특히 수중재활운동센터, 카페하모니, 작은도서관 등의 다양한 부대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에게는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지역주민에게는 폭넓은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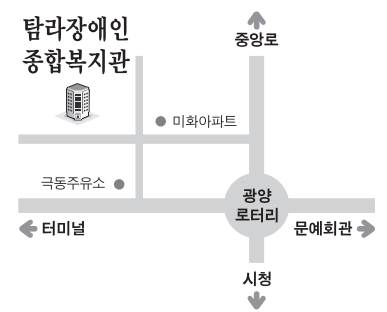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을 위해 84곳의 유관기관, 관공서 등과 협약을 맺었고 20여곳의 연계 활용기관(봉사단 등)과 함께 반찬지원, 주거환경개선, 목욕봉사, 장애인이동보조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관은 최근 발달재활센터를 운영하며, 장애 아동·청소년들에게 상담 및 치료, 교육 등의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복지관은 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 중이다. 시내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 취약지역인 제주시 서부지역에 10월부터 지소를 열어 발달재활서비스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은실 관장은 “우리 복지관은 장애·비장애 구분없이, 모두가 한데 어우러지는 공간”이라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복지관 운영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27)

함께하며 즐거워지는 가족봉사단 ‘다우렁’



몽생이기자단 3기는 지난달 12일 제주중 내부 가족봉사단 ‘다우렁’을 취재했다. 제주중학교 가족봉사단 ‘다우렁’은 2011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까지 5년째 봉사 중이다.

다우렁은 제주어로 ‘서로 상생하며 모두를 위한다’라는 의미로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다가가고 함께하는 가족활동을 통해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의 지혜를 배우고자 창단됐다.

봉사단은 매월 1회씩 월평동에 위치한 무지개마을 환우들을 찾아가 특별한 주제로 게임, 뽀빠이, 가족티 만들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다우렁 봉사단은 무지개마을 환우 22명까지 포함하여 155명에 달하는 인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가족이 함께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부모님과 자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뜻깊은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림’ 내 사회복지신문을 방문하시면, 기사의 따른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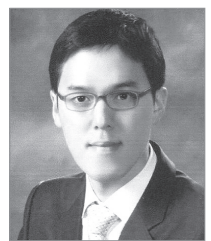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 ㉟

지급명령이란?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불안감에 빠지게 되는데 내용 자체도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중 ‘지급명령’은 이름 자체도 명령이 들어가 있어 마치 법원에서 나에게 무언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듯한 부담을 가지게 된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촉절차로서 소송, 조정과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분쟁 해결절차의 하나이다. 채권자는 정식 소송에 비해 간단한 절차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도록 방어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서류심리만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소송에 비해 인지대(10분의 1)와 송달료가 저렴하다. 통상의 소송이 적어도 수개월이 걸리는데 비해 지급명령은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에게는 2주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채권자는 정식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소송을 거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면 충분하고, 불복하는 이유를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없다.

채권자라면 소송 전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 봐도 좋을 것이고, 채무자라면 지급명령을 받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나와 우리를 위한
최선의 선택,
나눔!

나눔

2015 제주 대축제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나눔에
함께하고, 공감하고,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축제

2015.10.9^(금) 11:00 ~ 17:00
이마트제주점 야외주차장 (제주시 탑동)

나눔실천행사

- 아름다움을 나누는 '나누美' (11:00~12:00)
- 다자녀 가족 만족 Festival (11:30~13:00)
- 비빔밥 나누기 '삼촌 밥먹영 감사' (12:00~13:00)
- 나눔상자 만들기 (14:30~15:30)
- '즐거운 나눔' 게임으로 즐기는 나눔 (15:30~16:30)

상설부스운영

- 나눔체험마당, 나눔홍보마당
-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하는 나눔장터
- 나눔도서관(도서기부·교환·무료배부 등)
- 다자녀가족 어린이와 함께하는 그림그리기 대회

부대행사코너

- 1년 후 받아보는 희망엽서 쓰기, 캘리그래피 익히기,
캐리커처 그려주기, 나눔카페 운영, 나눔배지 만들기,
나눔실천서약, 나눔버거만들기(현장접수) 등



학생 자원봉사인증

행사 기간 중 축제 모니터링단 운영에 참여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는
'사회복지자원 봉사 2시간을 인증'해 드립니다.

「2015 제주 나눔 대축제」는 '이마트 제주점'의 '공간 나눔'으로 개최됩니다